

한자 교육의 실태와 방향*

장영희**

1. 머리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용어의 약 50~70%가 한자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의 대부분이 한자·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중국의 문자인 한자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의 언어생활 및 문화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온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일찍부터 우리말 속에 한자어가 대량으로 유입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단일언어를 사용하면서도 한글과 한자라는 이중문자 생활을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글과 한자의 이중문자 생활은 문자 표기 문제를 놓고 50년 동안이나 한글 전용 대 한자 혼용의 갈등을 겪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어 교육이 1945년 광복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이 갈등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 이 논문은 국어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자격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임.

** 국어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한 나라의 문자 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삶은 물론 국가 문화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선시대에 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쉬운 문자 생활을 위해’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정신을 되새겨 보더라도 문자 정책은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일상의 문자 생활에 불편이 없는 쪽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이란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그 사회의 전통을 전수하고 그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의 전통이나 현실과 동떨어질 수 없다. 국어 어휘의 약 50% 이상이 한자어이고 古典 대부분이 한자 및 한자어와 관련되므로 한자어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올바른 국어 생활은 물론 우리 민족 문화의 계승 발전도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한자 교육은 문자 정책과 별개일 수 없으며 우리의 언어 현실이나 우리 민족의 역사성과 문화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꼭 필요하다. 한자가 우리 문자가 아니라고 배격만 할 것은 아니다. 서구의 선진국들도 그들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그 원류를 탐구하기 위해서 라틴어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

국경이 희미해진 세상에 언어는 경쟁력이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사고와 문화를 익히는 데 필수적이다. 서양에서도 한자 시대가 올 것에 대비해 한자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런던대학은 1,200자의 기초 한자를 지도하고, 예일대학은 1,000자를 제정해 관련학과에서 지도하고 있다. 오늘날 16억이나 되는 많은 亞太人이 사용하는 한자문화권의 중심에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한자 교육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또 여기에 있다. 특히 중국이 급속도로 부상하면서 중국, 일본과의 한자 문화권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최소한도의 한자 실력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할 때 한

자 교육은 무척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나라 한자 교육 전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이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문자 정책의 변천사¹⁾

문자 정책에 있어서는 1894년 고종 31년, 대한제국 칙령 제1호로 “법률 명령은 다 국문으로 본을 삼고 한문 번역을 붙이며, 혹 국한문을 혼용한다.”는 한글 전용 대원칙에 관한 법령을 공포함으로써 법적 차원의 문자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광복 직후 민족의 독립과 함께 국어 순화론자들의 주장에 의해 한글 전용이 학교 교육에서 강력히 추진되었고 1948년 12월에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한글 전용의 선봉장인 최현배 선생님은 “교육은 인간에서의 가장 근본스럽고 중요한 일”이라 하여 한자와 비교하여 한글의 장점을 언급하면서 (1970:6~9) 한자를 배격함은 물론 가능한 한 모든 어휘를 우리 고유의 말로 바꿀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자가 비록 중국의 문자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 문자 생활에 융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광복 이후 시작된 이러한 갈등은 우리 나라 문자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에까지도 큰 혼란을 가져 왔다.

광복 후 지금까지 문자 정책의 변천상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945년 12월 8일. 미군정청 학무국 조선교육심의회, “초등, 중등 교육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쓰고 한자는 안 쓰기로 함”을 결의.

1948년 12월. 국회에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6호 통과. “대한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1) 문자 정책과 한자 문제는 김민수(1973), 김문창(1984), 심재기(1988), 민현식(1999) 참고

1949년. 정부, 한자 병용 허용.

1950년 5월. 정부 한자 혼용 허용.

1951년 9월. 상용 한자 1,000자 제정(한자 폐지 정책의 문제점을 보충하기 위함).

1954년. 한글 전용 강조 기존 상용 한자 1,00자에 300자를 보탠 1,300자의 임시 제한 한자 제정. 國校 高學年 국한 혼용.

1955년. 문교부, 한글 전용법 발표 “대한민국의 모든 공문서와 신문·잡지 및 공공 표지물은 한글로 쓴다. 다만 학술용어로서 부득이한 경우의 용어는 괄호 안에 첨사한다”

1957년. 한글 전용 적극 추진안과 한글 전용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1958년 1월. 한글 전용 실천 요강 실시. 간판·문서·관청 도장 등 한글 전용 지시.

1959년. 문교부, 내무부 협조로 거리 간판의 한자 강제 추방.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한글 전용 법률안 개정.

1962년 5월. 한글 전용 원칙 발표.

1963년 8월. 교과서에 한자 노출. 한글 전용 특별 심의회, 한글 전용안 회보 5집 간행(총 14,159개 어휘의 한자·외래어·어려운 말 풀이).

1965년. 한글 전용에 관한 개정 법률안 공포. 초중고 교과서에 임시 허용 한자 1,300자 노출.

1968년. 대통령, 한글 전용 선언. 한글 전용 5개년 계획 공포 ‘한글 전용 촉진 7개 사항 지시’.

1970년 1월 1일. 한글 전용 단행. 초중고 교과서에서 한자 없앴.

1972년 8월. 중고 한자 교육 부활.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제정.(중학교용 900자, 고등학교용 900자).

1973년. 각 대학에 한문 교육과 신설.

1975년. 중고 교과서에 한자 등장(병용).

1998년. 정부, 모든 공문서에 한자 병용.

1999년 1월. 정부, ‘한글 전용법’ 틀 내에서 한자 병용 추진 방안 발표. 정부 공문서와 도로 표지판에 한자 병용.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문자 정책이 얼마나 무원칙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학교 교육이 크게 흔들려 왔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제는 정부 당국이 확고한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으로써 더 이상의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한글 전용을 하더라도 한자 교육은 필요하며, 한자 혼용을 하더라도 한 글이 주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 우리의 문자 생활은 한글 전용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전의 한자 혼용 신문들에서도 해마다 눈에 띄게 한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²⁾ 한글 전용의 대세를 거슬러가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글 전용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한자 병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998년 정부는 모든 공문서에 한자를 병용할 수 있게 했다. 편하고 쉬운 우리말을 찾아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그것을 찾아서 쓰고,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헛갈리지 않고 명료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자를 병기해 주는 것이 적절하고 정확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자 병용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나 국민적 여론 수렴을 거쳐 의견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내려진다면 공문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확고하게 하나의 정책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글 전용과 한자 혼용의 주요 쟁점

한글 전용론자나 한자 혼용론자들이 모두 극단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

2) 노대규(1989:4~6)의 1948년과 1988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사제목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글 사용은 40.8%에서 86%로 높아졌고, 한자 사용은 59.2%에서 14%로 낮아졌다. 즉 한글의 사용이 한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처럼 보이거나 사실 이들은 서로 배타적 관계라기 보다는 충분히 상보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이다. 이들의 관계에 대해 김문창(1984:13)은 한글 전용론 안에서도 한자 사용 및 한자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국한 혼용론 가운데서도 또한 한글을 될수록 사용하고 한자를 억제 하자는 제한론들이 있어 양측의 주장을 일도양단식(一刀兩斷式)으로 양분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한글 전용론자나 한자 혼용론자들이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둘 사이의 접점을 찾아 서로의 이견을 좁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 한글 전용론

한글 전용론은 최현배가 선봉장으로서 그가 활동했던 한글학회의 기본 태도로 이들이 주장한 논지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한글 전용으로 문자, 언어, 의사 표현에 지장이 없다.
- 둘째, 한자는 자수와 자획이 많아 문자교육에 부적절하다.
- 셋째, 한자의 발음이 한·중·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 넷째, 정보화 시대에 한자는 큰 걸림돌이 된다.
- 다섯째, 우리 민족 문화의 보존 및 창조적 발전을 위하여 한글만 써야 한다.
- 여섯째, 전국민이 한자를 익히기보다는 한문학자만 고전국역에 매진하면 된다.

한글의 두드러진 특성 가운데 하나는 배워서 익히기가 쉽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序의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 아침 안에 깨칠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 안에 배울 수 있다.³⁾

오늘날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된 것도 바로 이러한 한글의 대중성 때문이다.⁴⁾ 한글 전용의 더욱 중요하고 본질적 이유는 말과 글이 인간의 사고와 인식을 지배한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왜 일제가 그토록 우리말과 글을 말살하려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한글 전용론자들은 한글 전용을 국민 정신과 민족적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로 다루고 한글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2) 한자 혼용론

한자 혼용론은 한국어문교육연구회, 한국국어교육연구회, 한국국어교육학회, 국어국문학회, 국어학회 등에서 주장하고 있으며 그 논지를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말의 70%가 한자어이므로 국어 어휘력 신장을 위해서 한자 교육은 필요하다.

둘째, 국어에는 동음이의어가 많은데 한자는 이의 의미 식별을 용이하게 해준다.

셋째, 한자는 조어력과 축약력이 강해 수많은 어휘를 만들 수 있다.

넷째, 문장이나 지면에 나타난 한자는 그 뜻이 바로 떠오르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

3) 원문은 智者不終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 이다.

4) 이러한 한글의 특성은 국제 기구에서도 공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유네스코(UNESCO)에서는 11년 전부터 해마다 세계에서 문맹 퇴치에 공이 큰 이들에게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King Sejong Literary Prize)”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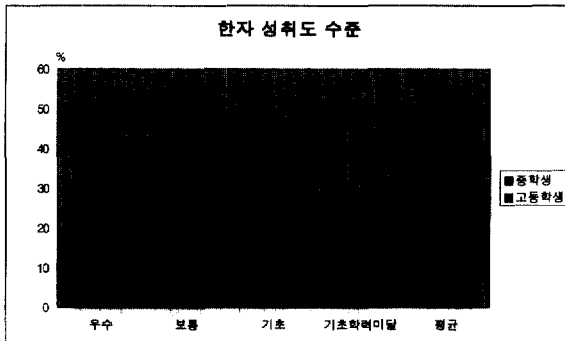
다섯째, 국제화 시대 한자문화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문자인 한자를 알아야 한다.

여섯째,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국어 교육의 첫째 목표는 말과 글을 배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쓰고 싶은 글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의 말이나 글을 듣거나 읽어서 옳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있다.

그런데 문자 정책이 혼란을 겪으면서 한글 세대가 양산되었고 한글 세대의 국어 능력이 저하되어 일상적인 사회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1997년 전국 49개 대학 61개 학과의 남자 졸업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한자능력검정회의 4급 문제지로 시험을 치른 「대학졸업생의 한자 능력 조사」에서 평균 점수가 29.5점이었고, 50점 미만이 89%를 차지했다는 보고도 있다(조선일보, 1997.9.10. 사회면).

또한 2000년 6월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 가운데 전국 학생의 약 0.5%를 표집(중학교 88개 학교, 고등학교 92개 학교에서 각 학교 당 1개 학급씩, 총 중학교 3학년 3,353명과 고등학교 2학년 3,965명)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중학생은 우수 학력자와 기초 학력 미달자가 각각 14.3%와 5.1%였고 고등학생은 각각 13.8%와 2.4%이다.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중학생이 45.6점, 고등학생은 52.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성별로 조사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각각 43.06점과 48.89점으로 여학생이 조금 높았다. 고등학생도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51.99점과 52.63점으로 여학생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국어 어휘의 태반이 한자어이고 학문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한자어의 비중은 더욱 커진다. 그런데 이 두 조사의 예만 보더라도 우리 나라 학생들의 한자 수준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심히 우려할 상황이다. 더구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한자를 모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한자 혼용론자들은 우리 국어 교육의 향상과 민족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의 측면에서 한자 혼용을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도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 한자를 모르고서 경쟁력을 높일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3) 한글 전용과 한자 교육

한자어를 한글로만 쓰는 것이 한글 전용은 아닐 것이다. 한자 표현을 한글로 바꾸는 데에는 많은 경우 언어적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또 어려운 한자어를 꼭 한자로 써야 할 필요도 없다.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이 있다면 찾아서 쓰는 것이 당연하다.

도로변이나 강가, 주요 시설문 근처에는 ‘접도 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 ‘녹화지 출입금지’, ‘폭발물 반입금지’ 등과 같은 경고판이 아주 많은데 거의가 어려운 한자말 일색이다. 또 다음 예의 왼쪽은 한자를 음만 한글로 바꾸어 놓은 것으로 거의 의미 파악이 잘 안 되는 것들이다. 오른쪽은 어

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놓은 것이다.

- 싸리나무 식재지(植栽地) → 싸리나무 심은 곳
- 사고다발지역(事故多發地域) → 사고 많은 곳, 사고 잦은 곳
- 노견(路肩) → 갓길
- 독거노인(獨居老人) → 혼자 사는 노인
- 분기점(分岐點) → 갈림길
- 무가지(無價紙) → 무료신문

위의 예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한자를 음만 바꾸어 놓으면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전용과 함께 한자 교육의 필요성이 항상 제기되며 한글 전용과 국한 혼용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문자의 존재 이유가 의사 전달에 그 최종 목적이 있다면, 편하고 쉬운 우리말을 찾아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그것을 찾아 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의사 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말의 50% 이상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문화와 학문에 관한 어휘는 거의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한자라고 해서 배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늘날 16억 亞太人이 사용하고 있는 한자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언어이다. 한자 문화권에서 정보화나 세계화의 핵심을 이루는 것도 한자이다. 우리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한자 문화권의 중심에 있는 만큼 21세기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한자를 모르고서 경쟁력을 높일 수 없음을 분명한 사실이다. 한글 전용론자나 한자 혼용론자는 다 함께 이러한 변화하는 세계 환경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오직 국가의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방향에서 생각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한·중·일 3국의 한자 교육 실태

1) 한국의 한자 교육

정부의 문자 정책이 한글 전용과 국한 혼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과서에 한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만 피해를 입었다. 특히 1970년 전면적인 한글 전용이 단행되면서 모든 교과서에서 한자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자 큰 혼란이 일어났다.

이에 정부는 1971년 교육과정을 부분 개정하여 한문을 중·고등학교의 독립 필수 교과로 지정했고, 1972년부터는 한문을 독립 교과로 운영했으며 그해 8월에는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제정하여 중학교에서 900자 고등학교에서 900자씩을 필수적으로 지도하게 하였다. 이후 몇 차례의 교육과정 개편을 거치면서 6차 교육과정에는 필수 교과에서 선택 교과로 축소되었으며,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한문을 고2 때에 가서야 가르치도록 명문화해 놓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학교 재량시간이 설정되어 한자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즉 초등학교 3·4·5·6학년 대상으로 기초한자 600자를 바탕으로 한자·한자어·한자어구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육용 기초한자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학교마다 교재와 교수법이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육용 기초한자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오늘날 증가하는 지식과 정보의 양을 충족시키고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에 대해서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북한의 한자 교육⁵⁾

북한은 1953년부터 한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초급 중학교 1학년부터 3년간 600자, 고급 중학교 3년간 1,200자, 계 1,800자를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1970년에 보통 교육용 2,000자, 대학용 1,000자를 새로 제정하여 국한문 혼용체로 교육을 강화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인민학교(우리 나라 초등학교 1학년~4학년)에서는 한자를 가르치지 않으나 우리 나라 초등학교 5~6학년에 해당하는 고등중학교 1~2학년에서 500자, 우리 나라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고등중학교 6학년까지는 1,500자를 가르치고 있다. 여기에다 기술학교용 500자를 합하여 보통교육용으로 2,000자를 가르치고 있다. 대학과정은 별도로 1,000자를 더 가르치게 되어 있어 학생들은 모두 3,000자를 배우고 있다.

우리가 1970년에 한글 전용을 단행한 것과는 다르게 북한에서는 오히려 한자 교육을 강화하여 우리보다 더 많은 3,000자를 대학교에 이르는 전 학교 과정에서 배우게 하고 있는 것이다.

3) 일본의 한자 교육⁶⁾

초등학교의 한자 교육은 '초등학교학습지도요령'에 나타나 있다. 일본의 초등학생은 1학년 때 80자를 시작으로 6년간 1,006자 정도의 한자를 읽고 쓰는 교육을 받고 있다. 1,006자로 정한 것은 이들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쓰이는 중요 한자임은 물론 최소한의 문자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5) 북한의 한자 교육은 남광우(1988) 참고

6) 일본의 한자 교육은 김상홍 외(1999)과 이한섭(1999) 참고

중학교의 한자 교육은 초등학교 때 배운 1,006자의 한자를 완전히 읽고 쓰게 하고, 1,945자의 상용한자 중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939자는 대략 읽을 수 있는 데까지 교육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초·중학교와 달리 습득할 한자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상용한자를 익숙하게 읽게 하고 주요한 상용한자를 쓸 수 있도록 한다”라고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의 ‘국어 I’에 설명해 놓고 있다.

4) 중국의 한자 교육⁷⁾

중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한 9년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상용자 2,502자는 초등학교에서, 차상용자 918자는 중학교에서 익히게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사용된 문장의 내용에 따라 약간의 비상용자를 추가로 학습한다. 상용자는 아니지만 알 아들 필요가 있는 글자를 提高字, 잘 사용하지 않는 글자를 生僻字라 하여 추가해 놓고 있다.

5) 한국·북한·일본·중국의 한자 교육 현황

앞에서 다룬 한국과 북한, 일본·중국의 한자 교육에 대해서 종합적인 도표를 만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7) 중국의 한자 교육은 김상홍 외(1999)과 이규갑(1999) 참고

한국·북한·일본의 한자 교육 현황

초등학교	1학년		80자	340			
	2학년		160자	740			
	3학년		200자	560			
	4학년		100자	400			
	5학년		↑	185자	245		
	6학년		↓	181자	267		
	계			1,006자	2,502자		
중학교	900자	2,000자 (고등중학교)	339자		918	386	31
				소계 : 1,335자			
고등학교	900자	6학년까지 1,500자, 기술학교용 500자)			33	198	17
				소계 : 248자			

전체적 숫자만 보더라도 우리 나라가 북한이나 일본에 비해 한자 학습량이 상당히 적은 실정이다. 북한의 경우 남한 1,800자 대 3,000자로 남북한 언어의 격차가 크게 드러나고 있다. 남북한 언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한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1세기 인간은 국제인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 나라의 고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여 유치원생에게도 600여 한자를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일본의 실제적 한자 학습량은 우리 보다 훨씬 많다. 일본은 우리와 인접한 한자문화권 국가로 서로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또 공통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문화 이해도가 커서 한자를 많이 알면 알수록 일본어 학습에도 유리할 것이다.

5. 한자 교육이 나아갈 방향

지금까지 우리 나라 문자 정책과 한·중·일 3국의 한자 교육에 대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의 한자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함이 분명해졌다.

더욱이 우리 나라와 중국, 일본의 상호 인접한 지정학적 조건은 한자로 하여금 공통 유사한 민족 문화의 기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케 하여 이른바 한자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한·중·일 3국은 지난 1994년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3국 공용의 상용한자를 마련하는 것이 한·중·일 3국의 상호 번영과 이해를 촉진시키는 첩경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지금까지 수 차례 회의를 열어 오고 있다.

물론 3국 공용의 상용한자 선정이 국가간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꾸준히 연구해 가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이 일이 실현된다면 여러 분야에서 한자 문화권 안의 교류가 확대되어 한자 문화권의 결속과 협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언어는 다르더라도 한자로써 의사를 소통할 수 있고 상대방 한자 문헌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면서 이들 국가와의 문화적 연대와 동질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한자를 알고 있으면 공통한자어가 많은 한·중·일 문화권에서 중국어나 일본어의 습득에도 유리할 것이다.

이런 현실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의 한자 교육을 강화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 보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에서의 한자 교육 실시 문제

둘째, 현재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조정 문제

셋째, 한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문제

1) 초등학교에서의 한자 교육 실시 문제

현재 영어 교육이 조기화한 상황에서 한자가 어렵다고 해서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분명 모순이다. 영어 세계화 바람 속에 아이들의 의식이 서구화되어 가는 것은 우려할 문제이다. 다행한 것은 최근 한자 교육 희망 여부에 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가 초등학교의 한자 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1999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7개 시도 교수·교사·일반인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에서의 한자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 실시 여부⁸⁾

서울	①	84	5	8	5	84	5	10	64	265	49.7
	②	7		4		32		2	16	61	11.4
부산	①		2	2	2		3		9	18	3.3
	②							1		1	0.18
대구	①	1	1	1		2	4		30	39	7.3
	②								2	2	0.37
경기	①	7				8			9	24	4.5
	②					9			1	10	1.87
강원	①						2		30	32	6.0
	②								1	1	0.18
충남	①			1	3		4	7		15	2.8
	②					1		2		3	0.56
경북	①	1			1		5	9	18	34	6.73
	②						1	1	26	28	5.25
계	①	93	8	12	11	94	23	26	160	427	80.1
	②	7		4		42	1	6	46	106	19.9

8) 김상홍 외(1999)에서 재인용.

- ①은 “초등학교에서도 한자 교육을 해야 한다”
- ②는 “현행대로 중·고등학교에서만 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도 한자를 교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총 응답자의 80.1%로 압도적이다. 현행대로 중·고등학교에서만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은 19.9%에 불과하다. 이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여러 단체와 학자들이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다음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한자 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자 교육 찬성률⁹⁾

조사기관	연도	조사대상	찬성률
국어국문학회	1968	當會員(110)	66%
鄭遇相	1972	남녀고교생(1,350)	53%
		초중고교사(850)	70%
忠南教育院	1973	학부모	92%
大韓教聯	1975	전국초중고교사(456)	82.3%
		시도교위장학사(22)	
		시도교위연구관(22)	
韓國語文研	1979	전국 지식인(277)	81%
張喜久	1980	광주, 학부모(4,718)	77.6%

우리는 수년 전부터 ‘세계화’를 강조하면서 이와 함께 외국어 교육, 특히 영어 교육은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에서도 중요한 과목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턴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놓고 볼 때 미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임에 틀림없다.

9) 김문창(1984:85)에서 재인용.

그러나 우리와 인접한 한자 문화권으로 눈을 돌려 본다면 이들 국가들이 우리 나라에 있어 역사적·문화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미국에 못지 않게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근 20년 간 동아시아 지역의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한자 문화권에 속한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한자 문화권 국가들과의 각종 교류에 있어 한자를 가지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은 큰 이점이 된다. 그렇다면 영어뿐만 아니라 한자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2)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조정 문제

현재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는 1972년에 제정되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용' 한자일 뿐이어서 실용적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표준 국어 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편)을 대상으로 한 사전 표제어의 한자 빈도를 조사한 결과도 참고할 만하다. 대사전 표제어 가운데 한자가 총 7,310자가 사용되었는데 빈도수 90%에 해당하는 한자가 1,589자, 95%에 해당하는 한자가 2,256로 밝혀졌다.¹⁰⁾ 이 빈도수 조사에 의한다면 우리가 국어 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한자어를 모두 알기 위해서는 7,310자의 한자를 모두 학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95%이상의 학습 성취를 목표로 한다면 2,300자의 한자만 학습하면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중국에서도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는 한자 수가 대략 3천에서 4천 자라고 한다. 또 한 통계에 의하면 중국 출판물의 90%를 차지하는 것은 950자이고, 99%는 2,400자로 채워진다. 중국에서는 1988년에 국가교육

10) 남윤진, 「국어사전 표제어의 한자 빈도」, 『새국어생활』 제9권 제1호, 1999.

위원회와 국가언어문자공작위원회(國家言語文字工作委員會)가 공동으로 현대한어상용자표(現代漢語常用字表)를 공포해 상용자 3,500자를 정했는데 이 3,500자의 사용 빈도율이 99.48%나 된다고 한다(최영애1998:161).

우리 나라에서도 1990년 11월 24일에 4개 학술단체(한국어문연구회, 한국국어교육연구회, 한국국어교육학회, 한국한문교육연구회)가 공동으로 상용한자 2,000자 안을 최종 확정하고 성명(姓名), 지명용(地名用) 한자 300자를 첨부한 바 있다.¹¹⁾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가 제정된 지 거의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방향은 우리 교육 환경의 변화, 첨단 지식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의 언어 자료를 기초로 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언어 자료에 사용된 개별 한자의 빈도수를 조사하여 반드시 읽고 쓸 수 있어야 할 한자, 쓰지는 못할 망정 읽을 수는 있어야 할 한자 등으로 나누어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한자 교육을 실시한다면 초등학교용 기초 한자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중·일 3국의 문화 교류 차원에서도 범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한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문제

학교에서 한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회가 지닌 갖가지 체제와 구조들도 그것의 실용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언어와 문자는 실제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차이가 아주 크다. 그런데 배워 놓고도 써먹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비효율적인 일도 없을 것이다. 쓸모 없

11) 「常用漢字의 制定」, 『어문연구』 63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1990.

는 지식이 되지 않도록 신문·잡지 기타 각종 언론 매체에서 한자를 적절히 사용하여 평상시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로 표지판이나 공공 건물의 간판에 한글과 영어는 물론 한자를 병기함으로써 한자 교육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한자 문화권 국가들의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어학 교육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자 활용 능력 성취도에 대한 혜택을 준다든지 하여 사회적으로 한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어문화회,¹²⁾ 한문능력검정회, 한자급수자격검정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자능력검정시험에서 한자 급수 취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대학 진학시 또는 회사에 입사하거나 승진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등 수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한자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6. 맺음말

과거 반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의 우리 나라 문자 정책과 한자 교육의 성과를 냉철히 분석·평가하여 볼 때 한글 전용과 국한 혼용의 소모적 논쟁으로 인해 효율적인 한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하나의 언어와 문자는 차원이 다른 두 가지 사안이다. 언어는 강렬한 민족성을 띠고 있으나 문자는 얼마든지 차용해 쓸 수 있다.

12) (사) 한국어문화회는 국가 공인을 얻은 민간 기관(유효기간: 2001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으로서 1급에서 4급까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공인 자격증을 주고 있다.

오늘날 한자는 결코 중국만의 문자는 아니다. 오랜 과거부터 동양문화권의 여러 나라와 민족이 함께 공유하고 사용해 온 문자이다. 우리 나라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기 전부터 우리의 언어 생활과 문자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자이다. 표음문자의 극치인 한글과 표의문자의 극치인 한자가 조화를 이룰 때 부족함이나 아쉬움 없는 언어 생활, 문자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21세기 중반기에 이르면 세계의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영자 문화권과 한자 문화권과의 치열한 경쟁의 형국이 전개될 것이라는 구미학자들의 예견도 그냥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변화하는 세계 환경을 인식하고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한자 교육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이란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그 사회의 전통을 전수하고 그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의 전통이나 현실과 동떨어질 수 없다. 국어 어휘의 약 50% 이상이 한자어이고 古典 대부분이 한자 및 한자어와 관련되므로 한자어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올바른 국어 생활은 물론 우리 민족 문화의 계승 발전도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국어 생활과 우리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민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한자 정책의 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제는 한글 전용론자나 국한 혼용론자나 다 함께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합의점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고은주, 「‘공통과학’ 교과서의 한글표기, 한자표기 및 순우리말 과학용어에 대한 이해도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8.
- 김경옥, 「중등교육에서의 한자어 이해도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9.
- 김문창, 『국어 문자표기론』, 문학세계사, 1984.
- , 「한글전용론과 국한혼용론의 비교 연구」, 『국어교육과 한자문제』, 연구논총 85-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김민수, 『註解 訓民正音』, 통문관, 1957.
- , 『국어정책론』, 고려대 출판부, 1973.
- , 「북한의 한자 교육」, 『새국어생활』 제9권 제2호, 1999.
- 김상홍 외 4인,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조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 교육부 정책연구 과제, 1999.
- 남광우, 「語文教育二題」, 『國文研究』 59·60합병호, 일조각, 1988.
- 남윤진, 「국어사전 표제어의 한자 빈도」, 『새국어생활』 제9권 제1호, 1999.
- 노대규, 「한글과 한자의 사용 비율의 변화」, 『한글 새소식』 202호, 1989.
- 민현식, 『국어정서법연구』, 태학사, 1999.
- 박영의, 「한자 교육과 어휘력 신장의 상관성 분석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 방인태, 「남북한의 초등 한자 교육 비교」, 『한자한문교육』 제5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999.
- 심재기, 「국한자혼용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제23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8.
- 안승덕, 『한자교육론』, 아세아문화사, 1993.
- 이규갑, 「중국의 한자 교육」, 『새국어생활』 제9권 제2호, 1999.
- 이기문, 「韓國 國語教育의 反省」, 서울시립대 제1회 한·일 국어비교 학술대회 발표문, 2000.
- 이원수, 「국어 문자정책의 본질과 방향」, 『교육이론과 실천』 제9권, 경남대 교육문제연구소, 1999.

- 이응백, 「文面の 視覺化」, 『한글+한자문화』 7월호, 2001.
- 이한섭, 「일본의 한자 교육」, 『새국어생활』 제9권 제2호, 1999.
- 최영애, 『중국어란 무엇인가』, 통나무, 1988.
- 최현배, 『한글만 쓰기의 주장』, 정음사, 1970.
- 韓國語文教育硏究會, 「常用漢字의 制定」, 『語文硏究』 68號, 韓國語文教育硏究會, 1990.

■ Abstract

Actual State and Direction of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Jang, Yeong-hui

We know that the effective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was not accomplished because of the valueless discussion on the exclusive use of Hangeul and the use Hangeul together with Chinese characters for the half a century of the past. A language and a character is different things. The language has the strong racial characteristics. But the character can be borrowed without limit.

The Chinese characters are not the character for only china today. The Chinese characters are character to have been used through several countries and peoples of the Oriental culture circle from old times. The Chinese characters are character to have history and tradition that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our language life and character life before King Sejong made Hangeul. We will do good language life and character life when Hangeul, phonetic is harmonious with Chinese characters, ideogram.

European and American scholars foretold that English culture circle will compete against Chinese characters' culture circle in field of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so on if we will reach at the middle of 21 century. We have to recognize the change of the world circumstance. We think that the education of Chinese characters has to be strengthened from the viewpoint of national competitive power.

The education basically transmit the social tradition and present the social development direction to the younger generation. The education can not be separated from the social tradition or actuality. The correct Korean life and the succession development of our racial culture will be difficult without comprehension of Chinese characters because more than 50% of Korean vocabulary is Chinese characters and the majority of classical literature is connected with Chinese characters and a word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We have to systematize the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to be helped to correct Korean life and our cultural development . The scholars of Hangeul exclusive use and the scholars of Hangeul together with Chinese characters have to do our best to find the agreement in the direction of benefit in the future of nation and race.